



국민의 자리에서 본다

발상의 대전환

노영한
(대한양돈협회 전무)

매년 한 해를 보내면서 다사다난이란 단어를 즐겨 사용하는데, 금년이야 말로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변화가 있었던 한 해였다.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의 모든 부문에서 권위주의적 요소들이 하나씩 사라지면서 민주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새해에는 더욱 빠른 속도로 변화될 것이 분명하며, 그중에서도 농축산물의 수입개방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 분명하다.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여 양돈가족 여러분의 하시는 사업에 발전이 있기를 바라며, 새해 인사로 대신하고, 이렇게 변화하는 새 시대에 우리가 이제는 발상의 대전환 없이는 적응이 어렵겠기에 연말에 있었던 한 회의에 참석한 소감을 소개하고자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주관한 경제규제 개선을 위한 정책협의회가 큰 화제가 되고 있다. 경제계의 민주화를 주도하는 개선이라는 단어로는 걸맞지 않는 일대 경제혁명이기 때문이다. 이번 협의회에서 발표된 내용중에는 “사료산

업의 규제개선 방안”(고려대 蔡瑞-教授)과 “콩 관련산업의 경쟁촉진 방안”(KDI 李在亨 研究員)이 우리 축산업계와 관련이 있는 주제들이었다.

이번 협의회에는 경제기획원·농림수산부의 관계관과 농협, 축협, 협회, 업계에서 대표들이 참석하였고, 많은 관심있는 업계 인사들이 방청도 하고 의견도 제시하였다.

이번 협의회에서 느낀 것은 경제기획원 산하의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관하지 않고 농림수산부 산하의 농촌경제연구원(KREI)이 이 문제를 주관하였다면 어떻게 협의회가 진행되었을까? 하는 궁금증을 지울 수가 없었다. 같은 문제를 보는 시각이 같은 정부, 같은 업계에서 이렇게 다를까 하는 것이다.

한쪽에선 규제를 풀면 원료사료가 과잉 도입되고, 원료가 부정 유출되고, 그나마 사료 원료 수입을 규제하기 때문에 과잉생산을 막을 수 있어 양축가들이 혜택을 본다고 주장한다. 더군다나 부두 시설이 부족해서 부두 시설에 알맞게

수입을 통제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하였다.

이에 따라 다른 한편에선, 이제 정부가 민간인을 믿어야 하며 정보 경영능력이 정부보다 앞서가기 때문에 정부가 규제하여서는 안된다는 이론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규제를 하였지만 기업만 특혜를 주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제 최종 소비재인 축산물이 수입되어 경쟁적인데 중간소비재가 비경쟁적이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또한, 제조업체들이 서로 다른 가격으로 원료를 구매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

예를들면 두부업자와 식용유업자가 콩 값을 큰 차이로 구매하는데 식용유업자에게 값싼 대두박을 생산하라고 값싼 콩을 공급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는 반대로 나타는 것 등이다.

이제 정부는 사회적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데, 유탄사료나 가격의 담합·독과점 등을 철저히 규제하고 생산활동의 규제는 풀어 나가야 한다. 일시적인 문제가 무서워 규제를 풀지 못하는 것은 넘어지는 것이 무서워 걸음마를 못하게 누워만 있으라고 하는 것과 같으며, 이런 어린이는 평생 걷지도 뛰지도 못하게 된다. 부두가 좁으면 부두를 늘려야 하지, 수입량을 부두에 맞추려는 발상은 진취적이지 못하며, 무작정 수입하는 경영능력 가진 사람은 돈벌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한 농민대표는 일부 독과점 업자들은 백담사로 가야 된다고까지 하였다. 요즘 유행어로 발상의 대전환이 없고 서는 안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제 신문에 캄보디아의 폴포드 정권이 프놈펜 시민을 대량 학살하면서도 그 길만이 캄보디

아를 구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확신에서 하였고 기자회견을 한 기사를 읽은 기억이 있다. 이제 그때 학살된 유골을 잘 닦아서 박물관에 진열한다고 하는데 우리도 이제 불필요한 규제는 잘 닦아서 축산 박물관에 진열하면 될 것이다.

KDI 협의회에서 사회자의 말대로 이제 독과점 등 사회적 규제가 필요한데 이 문제가 나오면 오히려 자본주의체제니 자유경제체제니 하는 이론들이 등장하는데도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논어(論語)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한다.

낙시로 고기를 잡되 그물질을 하지 말고, 나는 새는 쏘되 자는 새는 쏘지 말라는 것이다.

이왕 고기를 잡으려면 저인망으로 싹쓸어 잡아야지 낙시로 하루종일 잡아 보아야 양도 안차고 비능률적이며, 새를 잡으려면 밤에 자는 놈을 잡기가 쉽지 무슨소리냐? 옛날 사람들은 머리가 안돌아 쓸데 없는 잠꼬대 한 것이 논어라고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저인망을 사용하니 어족이 멸종했고 자는 새까지 잡다보니 숲에서 새소리를 듣기 힘들게 되지 않았던가?

독과점으로 싹쓸이를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가는 서구에서 산업혁명후부(富)의 편재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 왔는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요람에서 무덤까지 정부의 규제속에서 외국처럼 사회보장으로 바뀌어야 하며, 오히려 사회적 규제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발상의 대전환 없이는 선진국으로 진입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협의회였다. **■**